



2006 '바둑연감' 출간
국내·외 기전 등 답야

2006 바둑연감(한국기원)이 출간됐다. '신 4대천왕' 이창호,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을 축으로 한국기사들의 국내외 기전 격전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국 바둑의 흐름 등 지난 1년간의 각종 바둑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이세돌 '후지쓰배는 모 아니면 도?'

2001년 첫 출전, 1회전만 통과하면 정상 오르는 묘한 인연
내달 1일 저우허양과 4강전...느낌 좋아 내친김에 우승 노려

제19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8강전이 끝난 뒤 이세돌 9단과 후지쓰배에 얽힌 흥미로운 사실이 최근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창호 9단을 상대로 최후전 전투력을 과시하며 4강에 오른 이세돌 9단이 그 동안 후지쓰배에서 보인 성적은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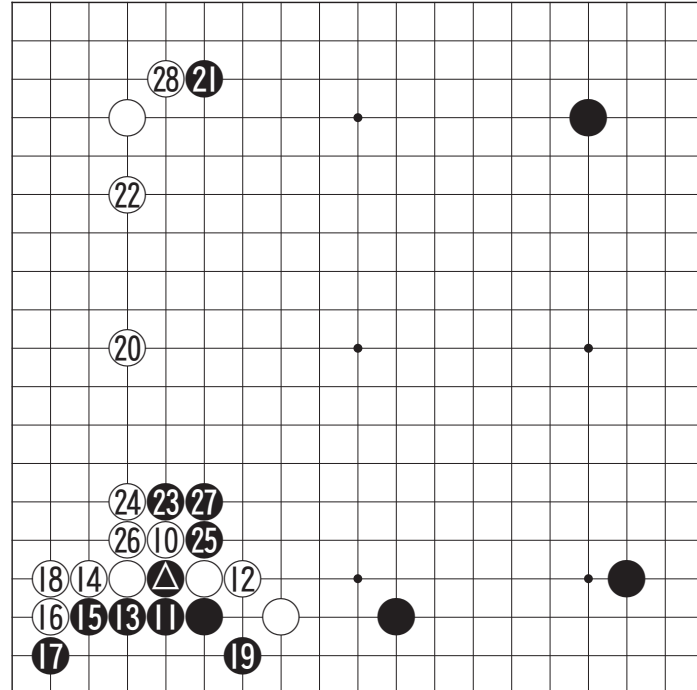
승리, 통산 세 번째 우승컵으로 정상에 복귀했다. 한 마디로 흥런 아니면 삼진의 연속이었다. 이 9단 개인적으로도 대 회에서 3회 이상 우승한 것은 후지쓰배가 유일하다. 이9단 외에 후지쓰배에서 3회 우승한 기사는 조훈현 9단이 있지만, 이9단은 2000년 이후 3회 우승을 '물어지기'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이번 대회에서도 4강에 진출해 통산 단독 4회 우승의 신기록 수립도 가능하다.



서 승리해 결승에 진출할 경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가리킨 듯. 이창호와 후지쓰배 1, 2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역혜택을 받게 된다.

제15회 光日盃
선택의 기로
2보(10~28)

백 박광주 5단 <광양제철>
흑 이강민 5단 <PCA생명>



정보 마지막 흑 2로 짜른 수는 어려워 보이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상용 정석이다. 하지만 흑이 불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백이 참고도의 1로 아래에서 끊어가는 수가 성립하게 된다.

이창호는 5단을 정통파답게 즉각 23로 붙여가 상대에게 손을 뻗 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은 24로 받을 수밖에 없고 25의 단수에 26으로 받았다. 백은 이번을 방치한 채 좌상구도 수순을 예상한 듯 일사천리로 바둑을 두어간다.

대한생명 '세계 어린이 국수전' 개최

6개부문... 27일까지 신청 접수
대한생명이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등 8개국 바둑 애호 어린이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수전을 개최한다.



“北 유치원생들도 바둑열기 후끈”

조선일보 인터넷판 소개
북한에서 열린 한 바둑대회에 유치원생들이 대거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지난 19일 소개했다.

Advertisement for Megabox and Cinema (엔터시네마) featuring X-Men and other movies. Includes showtimes and pr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Features contact information for agents and details on property locations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a business seminar (사업설명회) for a property investment project.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jec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ers.